

廣開土王碑文을 통한 『日本書紀』神功, 應神紀의 분석

洪性和 *

sunghhong@empal.com

Contents

- I. 머리말
- II. 高句麗와 百濟의 전투
- III. 『日本書紀』神功, 應神紀에 나타난 전투의 실상
 - 3.1. 東韓之地 및 帶方에서의 전투 분석
 - 3.2. 倭의 新羅 침공과 패퇴의 실상
- IV. 神功紀 삼한정벌의 의미
- V. 맺음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Baekje (百濟) and Japan (倭) in the ancient 4~5th century by a study on Jinku-ki (神功紀) and Oojin-ki (應神紀) in Ilbonseogi (日本書紀) based on Inscription of King Kwanggaeto (廣開土王碑文).

First of all, as we analyzed occurrences during 396~407 A.D. described on Inscription of King Kwanggaeto (廣開土王碑文), we could understand that Japan dispatched an army to Baekje (百濟) during the war between Baekje (百濟) and Koguryo (高句麗) in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of Japan's leading role under those circumstances of the battles.

Also, we could find out that the Seven-Branched Sword (Chiljido, 七枝刀), which Baekje (百濟) presented to a superior Japan (倭) in 372 A.D. written in Jinku-ki (神功紀) of Ilbonseogi (日本書紀), had made in Baekje (百濟) during the war between Baekje (百濟) and Koguryo (高句麗) in the Korean peninsula in 408 A.D. and was granted to Japanese King (倭王) when we studied Chinese characters carved on the Seven-Branched Sword (Chiljido, 七支刀).

* 고려대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원

Especially, authors of Ilbonseogi (日本書紀) didn't describe properly the truth that Japan dispatched an army to Baekje (百濟) in Oojin-ki (應神紀) of Ilbonseogi (日本書紀), which was written contemporaneously with Inscription of King Kwanggaeto (廣開土王碑文), and fabricated as the conquest of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by Japan (三韓征伐) in Jinku-ki (神功紀) of Ilbonseogi (日本書紀).

Therefore, compared Jinku-ki (神功紀) and Oojin-ki (應神紀) in Ilbonseogi (日本書紀) with the Inscription of King Kwanggaeto (廣開土王碑文), we could understand that Japan's military aid to Baekje (百濟) in the ancient 4~5th century was distorted to the conquest of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三韓征伐) by Japan and that the distortion was a matrix of the argument that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was ruled by Yamato government written in Ilbonseogi (日本書紀).

Key Words : Ilbonseogi, Jinku-ki, Oojin-ki, Inscription of King Kwanggaeto, Conquest of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日本書紀, 神功紀, 應神紀, 廣開土王碑文, 三韓征伐)

I. 머리말

『日本書紀』에 기록된 神功, 應神紀의 기사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대왕국의 형성과 더불어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¹⁾ 이를 통해 神功, 應神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對韓半島 관련 기사가 야마토 정권의 韓半島 南部 經營論의 출발로 인식되면서 소위 任那日本府說의 토대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日本書紀』 神功紀 기사의 전개를 보면 상당수가 전승과 전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韓半島諸國에 대한 기사에서도 神力으로 정벌한다는 등 비현실적인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²⁾ 神功에 대한 實在性이나 神功 전승 기록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神功의 삼한정벌론

1) 井上光貞(1960) 『日本國家の起源』, 岩波新書, pp.124-131

2) 神功皇后의 전승에 대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학자로는 田中卓, 岡本堅次 등이 있다. 이들은 4세기 중엽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그 세력을 확장했다는 井上光貞의 설에 근거하여 神功은 실재인물이며 신라정벌을 실제사건으로 보았다. (田中卓(1985) 『神功皇后“實在”論-北見俊夫教授の発言に關連して』 『悠久』21, pp.109-203 ; 岡本堅次(1959) 『神功皇后』, 吉川弘文館, pp.21-82)

의 허구성은 일찍이 津田左右吉로부터 이 전승이 繼體, 欽明朝의 6세기경에 만들어진 가공의 이야기라는 주장이 있는 후,³⁾ 直木孝次郎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7세기경의 사실을 모델로 해서 성립하였다는 설이 제시되어 神功 전승의 허구성이 주장되었다.⁴⁾

또한 『日本書紀』神功紀 기사에 대해서는 神功 49년조의 경우에서와 같이 倭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기사를 백제의 한반도 남부 진출로 보아 단순히 허구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주체를 百濟로 해석하는 경향이 커졌다.⁵⁾ 이처럼 『日本書紀』의 편찬 당시 일본의 국가관에 기초한 『日本書紀』의 사관에 의거하여 神功紀의 기사가 왜곡되었지만, 단순히 사서 편찬자들의 책상 위 창작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그 모태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연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과장, 윤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日本書紀』神功 攝政 前紀 冬10月조에 나오는 微叱己知波珍干岐의 기사 또한 『日本書紀』神功 5年 신라사신 毛麻利叱智의 기사와 연결되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보이는 未斯欣, 朴堤上(金堤上)의 일화와 동일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⁶⁾ 따라서 微叱己知波珍干岐와 毛麻利叱智가 등장하는 사건은 대체적으로 廣開土王碑文에 등장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기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日本書紀』神功 52년조에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사신인 久氐를 통해 七枝刀 등 각 종의 重寶를 바쳤다고 하는 기사도⁷⁾ 石上神宮에 보관 중인 七支刀의 銘

3) 津田左右吉(1963) 『日本古典の研究 上 津田左右吉全集』1, 岩波書店

4) 直木孝次郎의 논점은 i)신라정벌의 神託이 내려진 香椎宮이 神功의 전승을 제외하고 8세기 이전의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ii)여왕의 존재가 推古 이후에는 皇極(齊明), 持統으로 출현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神功만이 고립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iii)여왕이 직접 원정군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7세기초엽에 이르기까지 齊明이 백제구원과 신라정벌을 위해 北九州에 出兵했던 例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神功의 일본식 諡호가 오키나가타라시히메(オキナガタラシヒメ)인데 타라시(タラシ)계통의 이름은 舒明, 皇極에서도 보이므로 7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부계에 있어서 2회, 모계에 있어서 1회씩 異世代 혼인을 찾아볼 수 있어 이는 欽明 이후에 조작 또는 윤색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直木孝次郎(1988) 『神功皇后伝説の成立』 『古代日本と朝鮮、中国』、講談社、pp.76-106)

5) 千寛宇(1991) 『復元加耶史』 『加耶史研究』, 一潮閣, pp.23-25; 金鉉球(1993) 『任那日本府研究』, 一潮閣, pp.30-42

6) 未斯欣의 경우 『三國史記』에 의하면 402년, 『三國遺事』에서는 391년에 왜국에 인질로 파견된 것으로 되어 있다.

文을 재해석한 결과, 408년 백제의 腆支王 4년 百濟王世子가 진귀하게 태어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게 되어⁸⁾ 七支刀 또한 廣開土王碑文에 등장하는 5세기초의 사실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日本書紀』 應神紀를 2주갑 수정하면 廣開土王碑文에 나오는 시기와 일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日本書紀』 應神紀에서 廣開土王碑文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應神 8年 分註 『百濟記』에서 腆支의 파견을 통한 백제와 왜의 和通 기록만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日本書紀』 應神紀를 廣開土王碑文과 면밀히 비교하면 應神紀에 나오는 東韓之地 등의 지역이 廣開土王碑文에서 백제가 고구려에 의해 침탈당했던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된다.⁹⁾

이처럼 『日本書紀』 神功, 應神紀에서 廣開土王碑文에 나오는 상황과 흡사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당대에 쓰인 廣開土王碑文을 중심으로 『日本書紀』 神功紀와 應神紀에 나오는 한반도 관련 기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本考에서는 5세기초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廣開土王碑文을 통해 『日本書紀』 神功, 應神紀에 나오는 한반도 관련 기사를 비교, 고찰하고 그 모태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II. 高句麗와 百濟의 전투

우선 4세기말~5세기초 국제관계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대에 만들어진 廣開土王碑文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廣開土王碑文을 보면 백제는 396년 이래 고구려의 廣開土王에 의해 지속적인 침탈을 당하게 된다. 廣開土王은 永樂 6년 몸소 수군을 인솔하여 백제의 58

7) 『日本書紀』 卷 第9 神功 52年 秋9月丁卯朔丙子

久氏等從千熊長彥詣之 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 及種種重寶

8) 洪性和(2009) 「石上神宮 七支刀에 대한 一考察」 『韓日關係史研究』34, 한일관계사학회, pp.8-29

9) 洪性和(2009) 「『日本書紀』 應神紀 東韓之地에 대한 고찰」 『日本歷史研究』30, 일본사학회, pp.5-32

개 城과 700개 村을 얻어 백제왕을 노객으로 삼은 후, 永樂 8년(398년)에는 일부 군대를 변경의 帛愼土谷에 보내어 동정을 살피고 莫斯羅城, 加太羅谷을 획득한다.¹⁰⁾

이에 백제가 倭와 和通을 하는 기록이 廣開土王碑文에 등장한다.¹¹⁾ 『三國史記』에는 阿莘王 6年(397년)조에, 『日本書紀』에는 應神 8年조에 腆支(直支)를 왜국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¹²⁾ 『日本書紀』의 간지를 2운 수정하면 397년의 기사가 되므로 백제와 고구려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백제가 倭에 군사지원을 요구할 의도로 腆支를 보내 和通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백제는 397년 혹은 399년경 腆支를 倭國으로 보내 통호를 한 후 倭國에 군사요청을 함으로써 倭로부터 지원군을 받았던 것이다.

백제와 倭의 화통 기사 이후 곧바로 신라의 사신이 광개토왕에게 국경 부근에 왜군이 가득하다는 보고를 하게 된다.¹³⁾ 그리고 永樂 10년(400년)신라를 지

10) 廣開土王碑 永樂 6年 丙申 (396년)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軍至窠南 功取壹八城, 白模盧城, 各模盧城, 干氏利城,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古舍葛城, 阿旦城, 古利城, □利城, 雜珍城, 奧利城, 勾牟城, 古模耶羅城, 須[鄒]城, □□城, □而耶羅[城], 瑠城, 於利城, [農][賣]城, 豆奴城, 沸[城], 比利城, 彌鄒城, 也利城, 大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赤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林城,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閔奴城, 貫奴城, 彡穰城, 曾拔城, 宗古盧城, 仇天城, □□□□逼其國城. 殘不服義, 敢出迎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殘兵歸穴, 就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始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 村七百, 將殘主弟并大臣十人, 旋師還都.

廣開土王碑 永樂 8年 戊戌 (398년)

教遣偏師觀帛愼土谷 因便抄得莫斯羅城 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11) 廣開土王碑文 永樂 9年 己亥 (399년)

百殘違誓 與倭和通

12) 『三國史記』卷 第25 百濟本紀 阿莘王 6年 (397년)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日本書紀』卷 第10 應神 8年 春3月 (397년)

百濟人來朝 【百濟記云 阿花王立無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 及峴南 支侵 谷那 東韓之地 是以 遣 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

13) 廣開土王碑 永樂 9年 己亥 (409년)

百殘違誓 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稱其忠誠, 特遣使還, 告以密計.

永樂 17년(407년)조 전투의 경우 비문의 결락으로 인해 고구려와 싸운 주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¹⁹⁾ 하지만, 廣開土王碑文에서 廣開土王이 생전에 攻取했다고 하는 64城은 永樂 6년에 취득한 58城과 永樂 17년에 취득한 6城을 더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²⁰⁾ 이 기사도 고구려가 백제와 결전했던 기사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396년 이래 407년조까지의 내용에서 백제가 고구려에게 패배한 이후 왜를 끌어들이어 전투를 했던 것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당시 벌어진 對고구려전의 주체는 백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日本書紀』神功, 應神紀에 나타난 전투의 실상

3.1. 東韓之地 및 帶方에서의 전투 분석

우선 『日本書紀』應神紀에서 廣開土王碑文에 나오는 당시의 정황과 일치하는 기사로는 應神 8년(397년)과 이와 연결되는 應神 16년(405년)의 기사가 있다.

(㉠) 『日本書紀』卷 第10 應神 8年 春3月

百濟人來朝 【百濟記云 阿花王立无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 及峴南 支侵谷那東韓之地 是以 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

(㉡) 『日本書紀』卷 第10 應神 16年

是歲 百濟阿花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國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 而遣之 【東韓者 甘羅城 高難城 爾林城是也。】

이들 기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본래 腆支를 倭國으로 보내 통호를 한 후 倭國에 군사요청을 함으로써 倭로부터 지원군을 받았던 것인데, 이를 『日本書紀』에

19) 廣開土王碑 永樂 17年 丁未 (407년)

教遣步騎五萬 □□□□□□□□ 王師[四][方]合戰 斬煞蕩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 不可稱數. 還破沙溝城 婁城 牛由城 □城 □□□□□□城.

20) 吳吉煥(2008) 『廣開土王碑文 紀年記事에 보이는 廣開土王의 軍事行動』 『박물관지』,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pp.93-97

서는 直支(腆支)를 天朝에 朝貢하여 來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分註의 『百濟記』에서는 應神 8年 枕彌多禮, 峴南, 支侵, 谷那 및 東韓之地가 왜국에 의해 침탈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應神 16年の 기록에서는 直支(腆支)를 돌려보내면서 東韓之地를 돌려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앞서 廣開土王碑文을 통해 전투의 실상을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 倭가 백제의 땅을 침탈했다는 어떤 역사적 사실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 기사는 阿花王이 无禮해서 倭國에게 영토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해 東韓之地 등을 침탈당했던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 때문에 倭에 군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腆支를 朝貢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05년 腆支가 돌아오면서 왜의 지원군과 함께 東韓之地를 회복했던 사실을 『日本書紀』에서는 東韓之地를 돌려주었다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廣開土王碑文은 永樂 9년과 10년의 신라구원전 및 永樂 14년과 17년 백제-倭와의 전투 등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王躬率(王巡下)’을 중심으로 廣開土王이 親征한 유래를 밝히는 前置文을 앞에 두고 거기에 ‘教遣’이라는 표현을 부수해서 양자가 정벌전과 영토 확대에 관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教遣’으로 표현된 永樂 8년조의 경우 또한 ‘王躬率’이 등장하는 6년조 기사와 직접 연결된 기사로서 帛愼土谷 등의 지역은 廣開土王이 백제를 토벌한 후 국경 지역을 재차 순시하면서 백제로부터 획득했던 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²¹⁾

이를 통해 廣開土王碑에서 고구려가 동쪽의 韓地인 소백산맥 이남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백제의 국경과 접점에 위치했던 帛愼土谷 등의 지역이 『日本書紀』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각축을 했던 東韓之地인 것으로 추정된다.²²⁾ 즉, 倭가 東韓之地를 빼앗고 다시 돌려주었다는 기록은 倭가 백제를 복속했다는 후대 『日本書紀』 편찬자의 인식에 의해서 윤색이 가해진 것을 알 수 있다.

21) 浜田耕策(1974) 「高句麗 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 『古代朝鮮と日本』、龍溪書舎、pp.58-62 ; 洪性和(2009), 앞의 논문, 『日本歴史研究』30, pp.15-16

22) 東韓之地는 『日本書紀』, 廣開土王碑文, 『三國史記』地理志 등을 분석하면 경북 영주를 비롯한 경북 북부로 판단되어 東쪽의 韓地라는 명칭과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韓之地 및 枕彌多禮, 谷那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洪性和, 위의 논문을 참조

또한 『日本書紀』應神紀에서 廣開土王碑文에 나오는 당시의 정황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기사로 (ㄷ)의 경우가 있다.

(ㄷ) 『日本書紀』卷 第10 應神 20年 秋9月

倭漢直祖阿知使主 其子都加使主 並率己之黨類十七縣 而來歸焉

이 기사는 應神 20년(409년)阿知使主와 그의 아들 都加使主가 17縣을 거느리고 일본으로 망명하였다는 기록이다. 그런데, 『續日本紀』坂上大忌寸 薊田麻呂等の 上表(785년)에 의하면 이때 귀화한 阿知使主가 帶方에서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ㄷ) 『續日本紀』卷 第38 桓武 延曆4年 6月 癸酉

右衛士督從三位兼下總守坂上大忌寸 薊田麻呂等上表言. 臣等本是後漢靈帝之曾孫阿智王之後也. 漢祚遷魏 阿智王因神牛教 出行帶方 忽得寶帶瑞 其像似宮城 爰建國邑 育其人庶 後召父兄告曰 吾聞 東國有聖主 何不歸從乎 若久居此處 恐取覆滅 即携母弟 迂興德 及七姓民 歸化來朝 是則蒼田天皇治天下之御世也 於是阿智王奏請曰 臣旧居在於帶方 人民男女皆有才芸 近者寓於百濟高麗之間 心懷猶予未知去就 伏願天恩遣使追召之 乃勅遣臣八腹氏 分頭發遣 其人民男女 拳落隨使盡來 永為公民 積年累代 以至于今 今在諸國漢人亦是其後也.

물론 阿知使主가 동쪽에 성스러운 왕이 있어서 귀속했다든지, 사자를 파견해 달라고 해서 八腹氏를 따라 왜국으로 왔다는 『續日本紀』의 내용을 전적으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는 廣開土王碑文에 기록된 永樂 14년(404년) 帶方界의 침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백제의 故土인 帶方이 백제와 왜의 일시적인 공격으로 탈환되었으나 곧 바로 고구려에게 점령당하면서 帶方에 살고 있던 阿知使主가 백제로 탈출한 후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廣開土王碑文에는 倭가 주체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倭가 帶方界까지 올라 갈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백제에게 帶方 회복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應神 8年(397년)의 기사, 應神 16年(405년)의 기

사, 應神 20年(409년)의 기사는 모두 廣開土王碑文의 永樂 6년(396년), 永樂 8년(398년), 永樂 14년(404년)의 기사와 대응을 이루고 있다.

이 시기에 백제는 초기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58개 城과 東韓之地를 상실하게 된다. 이후 백제는 왜와 和通을 하고 왜와 합동 작전을 통해 고구려를 공격한다. 특히, 백제의 故土였던 帶方界를 재차 공격하였으나 패퇴하고 만다. 이 무렵 阿知使主와 그의 아들 都加使主의 일행이 帶方으로부터 백제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405년 腆支가 왕이 되면서 백제는 잃었던 영역 중에서 東韓之地는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북쪽의 58城 지역은 회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구려에 대한 패배상을 기록하지 않고 천황주의 사관으로 과장, 윤색되어 있는 『日本書紀』의 기사를 재검토하면, 廣開土王碑文에 나오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 실상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2. 倭의 新羅 침공과 패퇴의 실상

앞에서 廣開土王碑文의 永樂 6년(396년)에서 永樂 14년(404년)에 이르는 일련의 기사가 『日本書紀』 應神 8년(397년), 應神 16년(404년), 應神 20년(409년)의 기사와 유사한 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永樂 6년과 永樂 14년의 사이에 신라의 변방과 任那加羅에서 왜가 패퇴하는 廣開土王碑 永樂 10년(400년)조의 기사는 『日本書紀』에 보이지 않는다. 『日本書紀』는 통상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는 과장하고, 불리한 기사는 삭제하거나 윤색한 것으로 볼 때 고구려에 의해 패퇴하는 왜와 백제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史記』에는 阿莘王 12年(403년)春2月 ‘倭國使者至 王迎勞之特厚’의 기사와 연이어 나오는 秋7月 ‘遣兵侵新羅邊境’의 기사로 당시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朴堤上 열전의 ‘倭遂遣兵邏戍新羅境外 會高句麗來侵 并擒殺倭邏人’에서 朴堤上이 왜국으로 건너갔던 당시의 상황이 廣開土王碑文에 등장하는 한반도의 정세와 흡사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未斯欣의 경우 『三國史記』에 의하면 402년, 『三國遺事』에서는 391년에 왜국에 인질로 파견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毛麻利叱智가 등장하는 사건은 대체적으로 4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의 기사로 추정된다.

이는 『日本書紀』 神功 攝政 前紀 冬10月²³⁾과 神功 5年²⁴⁾의 기사에 나오는 微叱己知波珍干岐와 毛麻利叱智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사 또한 『三國史記』 朴堤上 열전에서 나타나듯이 朴堤上이 왜국으로 건너갔던 상황이며 그 전개과정이 廣開土王碑文에 등장하는 한반도의 정세와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라가 倭에 인질로 갔던 未斯欣을 朴堤上을 통해 불러들일 수 있었던 것도 고구려에 의한 왜군의 격퇴 이후 신라가 고구려와 연합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神功의 신라 정벌이란 전승 속에는 廣開土王碑文에서 볼 수 있는 4세기말~5세기초엽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백제는 397년 腆支를 왜국으로 보내 통호를 한 후²⁵⁾ 倭國에 군사요청을 함으로써 왜로부터 지원군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상황이 廣開土王碑文 永樂 10년조에 잘 적시되어 있다. 즉, 신라를 지원하고 있던 고구려가 그 倭를 추적하여 任那加羅의 從拔城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永樂 9년조에도 신라 국경에 왜군이 가득 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永樂 10년 男居城에서 新羅城 사이에 왜군이 있었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永樂 9년조를 보면 광개토왕이 신라의 사신을 돌려보내면서 ‘告以密計’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의 밀계란 永樂 10년조에 보이는 것처럼 배후에 있는 任那加羅의 從拔城을 기습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23) 『日本書紀』 卷 第9 神功 攝政 前紀 冬10月 己亥朔辛丑

爰新羅王波沙寐錦 卽以微叱己知波珍干岐爲質 仍齋金銀彩色及綾羅縑絹 載于八十艘船 令從官軍 是以 新羅王常以八十船之調 貢于日本國 其是之緣也 於是高麗 百濟二國王 聞新羅收圖 籍降於日本國 密令伺其軍勢 則知不可勝 自來于營外 叩頭而款曰 從今以後 永稱西蕃 不絕朝貢 故因以定內官家 是所謂之三韓也 皇后從新羅還之

24) 『日本書紀』 卷 第9 神功 5年 春3月 癸卯朔己酉

新羅王遣汗禮斯伐 毛麻利叱智 富羅母智等朝貢 仍有返先質微叱許智伐旱之情 是以誂許智伐旱而給之曰 使者汗禮斯伐 毛麻利叱智等告臣曰 我王以坐臣久不還而悉沒妻子爲孥 冀還本土 知虛實而請焉 皇太后則聽之 因以副葛城襲津彦而遣之 共到對馬宿于鋤海水門 時新羅使者毛麻利叱智等 竊分船及水手 載微叱旱岐令逃於新羅 乃造菑靈置微叱許智之床 詳爲病者 告襲津彦曰 微叱許智忽病之將死 襲津彦使人 令看病者 旣知欺而捉新羅使者三人 納檻中以火焚而殺 乃詣新羅 次于蹈鞬津 拔草羅城還之 是時俘人等 今桑原 佐糜 高宮 忍海 凡四邑漢人等之始祖也

25) 廣開土王碑文에는 399년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永樂 10년조의 사실이 『日本書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실제 『日本書紀』를 보면 고구려와 대치하면서 전투를 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東韓之地 등을 뺏었다가 다시 돌려주었다고 한 『日本書紀』의 표현 기법으로 보아서 고구려와 관련된 기사 중에서 왜국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는 빼거나 다른 표현으로 윤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日本書紀』를 살펴보면, 腆支가 왜국에 파견되었던 應神 8년(397년)의 기사와 腆支를 보내면서 東韓之地를 주었다는 應神 16년(405년)의 기사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 관련 기사가 주목된다.

(㉑) 『日本書紀』卷 第10 應神 14年

是歲 弓月君自百濟來歸. 因以奏之曰 臣領已國之人夫百廿縣而歸化. 然因新羅人之拒 皆留加羅國. 爰遣葛城襲津彥 而召弓月之人夫於加羅. 然經三年而襲津彥不來焉.

弓月君이 120현의 백성을 데리고 귀화하려다가 신라에 막혀 葛城襲津彥을 파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 나오는 葛城襲津彥은 神功 5년, 62년 應神 14년, 16년, 仁德 41년조 등 神功에서 仁德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에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재성이 의심되었던 인물이다. 『日本書紀』의 기년에 따르면 205년에서 353년까지 약 150여 년간의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襲津彥이 등장하는 기사를 고찰하여 보면 여러 가지로 윤색되고 과장된 상황 하에서도 그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

襲津彥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사는 神功 5년으로써, 신라 인질 微叱許智의 탈출사건의 중심인물로 나온다. 그런데, 神功 5년 기사의 경우 微叱許智를 탈출시킨 연도를 『日本書紀』의 편년에 맞추어 205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2주갑 수정해서 325년의 사건으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고찰했듯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통해 박제상과 미사흔이 등장하는 고사는 418년 내지 425년 사이로 좁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면 襲津彥을 3세기의 인물로 보기보다 5세기경의 인물로 볼 수 있다.

또한 『日本書紀』에는 襲津彦의 딸이 仁德의 妃로 등장하고 있는데, 만약 襲津彦이 仁德 妃의 부친이라고 한다면 襲津彦은 應神과 동시대의 사람이 된다. 이로써 襲津彦이 전설상의 인물이라기보다 그가 실재했던 기간은 5세기 초엽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따라서 (㉔) 應神 14年(403년) 襲津彦이 등장하는 기사는 百濟상이 등장하는 5세기 초엽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應神 14년 기사는 應神 16년의 기사와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 파견했던 襲津彦이 돌아오지 않자, 3년 후인 應神 16년(405년) 8월에 平群木菟宿禰 등을 보내 신라왕을 굴복시킨 후 襲津彦과 함께 弓月君의 백성을 이끌고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㉔) 『日本書紀』卷 第10 應神 16年 8月

遣平群木菟宿禰·的戶田宿禰於加羅. 仍授精兵詔之曰 襲津彦久之不還. 必由新羅之拒而滯之. 汝等急往之擊新羅 披其道路. 於是 木菟宿禰等進精兵 莅于新羅境. 新羅王愕之服其罪. 乃率弓月之人夫 與襲津彦共來焉.

廣開土王碑文에는 百濟와 왜가 화통했다는 399년의 기록과 왜가 대방군에 침입했다는 404년의 기록 사이에 永樂 10년조의 기사가 위치한다. 그런데, 『日本書紀』(㉓)과 (㉔)의 기사에서 신라 사람의 방해로 弓月君이 이끌던 120현의 사람들이 오지 못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襲津彦을 파견하였고, 그 보다 3년이 지난 뒤 정병을 보냄으로써 弓月君의 사람들과 襲津彦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은 廣開土王碑文의 永樂 10년조의 사건과 비슷한 정황을 갖고 있다.

즉, (㉓)에서는 신라가 방해하여 襲津彦이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구려가 임나가라를 공격하고 왜군이 패퇴를 하고 있는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결과 한반도에 파견되었던 襲津彦이 3년 동안 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패하여 弓月君의 사람들과 함께 왜로 건너가는 정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상황은 廣開土王碑文에서도 목격되듯이 고구려가 점령지에 대해 羅

26) 井上光貞(1965) 『帝紀からまた葛城氏』 『日本古代国家の研究』、岩波書店、p.56-59

人戍兵을 안치한 상태였다. 즉, 점령하였다는 지역에 대해 영토로 편입을 한 것이 아니라 순라군을 안치하였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고구려군이 왜를 추격하여 순라군을 안치했던 곳은 가라의 전역이 아니라 從拔城을 비롯한 일부의 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⁷⁾

이들 기사와 아울러서 『日本書紀』 神功 62년조의 기사가 주목된다.

(사) 『日本書紀』卷 第9 神功 62年

新羅不朝. 卽年 遣襲津彦擊新羅. 【百濟記云 壬午年 新羅不奉貴國. 貴國遣沙至比跪令討之. 新羅人莊飾美女二人 迎誘於津. 沙至比跪 受其美女 反伐加羅國 加羅國王己本旱岐 及兒百久至·阿首至·國沙利·伊羅麻酒·爾汶至等 將其人民 來奔百濟. 百濟厚遇之. 加羅國王妹既殿至 向大倭啓云 天皇遣沙至比跪 以討新羅. 而納新羅美女 捨而不討. 反滅我國. 兄弟人民 皆爲流沈. 不任憂思. 故 以來啓. 天皇大怒 卽遣木羅斤資 領兵衆來集加羅 復其社稷.】

神功 62년조에서는 특히 『百濟記』에 沙至比跪로 쓰인 襲津彦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 神功 62년조는 襲津彦을 보내 신라를 치려했지만, 오히려 가라를 쳐서 가라의 왕이 그 인민을 데리고 백제로 도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木羅斤資를 보내 가라의 사직을 되돌렸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이다. 일설에 의하면 襲津彦은 천황이 노한 것을 알고 감히 공공연히 돌아오지 못하고 숨었다고 되어 있다.²⁸⁾

(사)의 기사가 전체적으로 윤색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당시 왜와 백제, 가야諸國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廣開土王碑文에도 4세기 후반과 5세기 초반에 왜가 백제, 가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왜가 신라로부터 미녀를 받고 가라를 정벌했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27) 鈴木英夫(1996) 『古代の倭国と朝鮮諸国』、青木書店、pp.54-55

28) 『日本書紀』卷 第9 神功 62年 分註

一云. 沙至比跪知天皇怒. 不敢公還. 乃自竄伏. 其妹有幸於皇宮者. 比跪密遣使人 問天皇怒解不. 妹乃託夢言 今夜夢見沙至比跪. 天皇大怒云 比跪何敢來. 妹以皇言報之. 比跪知不寃 入石穴而死也.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㉔) 應神 14년의 是歲조와 (㉕) 應神 16년의 8월조에서 ‘가라에 묶긴 弓月君의 인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 파견된 龔津彦이 신라의 방해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木菟宿禰 등을 신라의 경계까지 파견하여 龔津彦이 弓月君의 인민과 같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기사와 동일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㉔)의 기사를 應神 14년, 16년조와 비교해보면, 井上光貞이 지적한 대로 沙至比跪의 행동이 應神紀 龔津彦의 행동과 일치하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i) 신라의 침략에 시달리는 가라에 파견되었다는 것, ii) 龔津彦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 iii) 별도의 장군을 보내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한 점이 보인다. 단지 다시 파견된 장군이 木羅斤資와 平群木菟宿禰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木菟宿禰로 되어 있는 것은 應神 3년조에 ‘백제의 辰斯王이 일본에 예의를 잃자 木菟宿禰 등을 파견하여 책망했다’³⁰⁾는 기록에 쓰였던 방식처럼 『日本書紀』 편찬자의 조작인 것으로 생각된다.³¹⁾ (㉔)의 木羅斤資에 대한 서술은 神功 49년조와 동일하게 木羅斤資를 파견한 주체가 야마토 정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왜와 백제가 아닌 제3세력에 의해 침략을 받은 加羅國의 己本早岐 등이 백제로 피난을 온 후 木羅斤資에 의해서 구원되었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일 수 있다. 그 제3세력은 아마 고구려이거나 신라일 것이다. 피난은 백제에 했으면서 구원은 야마토 정권이 했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고 가야

29) 井上光貞(1965), 앞의 논문, pp.58-59

30) 『日本書紀』 卷 第10 應神 3年

是歲 百濟辰斯王立之失禮於貴國天皇 故遣紀角宿禰·羽田矢代宿禰·石川宿禰·木菟宿禰 噴讓其无禮狀 由是 百濟國殺辰斯王以謝之 紀角宿禰等 便立阿花爲王而歸

31) 井上光貞의 경우 『百濟記』에 나오는 壬午年에 천착하여 神功 62年 분주 기사를 382년의 기사로 보고, 『古事記』 應神紀에 백제의 照古王이 阿知吉師와 함께 말을 현상했다는 기록 다음에 秦人의 기사가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하여 375년 이전에 肖古王의 말 현상이 있었고 이후 弓月君의 귀화, 382년에 沙至比跪가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井上光貞(1965), 앞의 논문) 하지만, 『百濟記』의 경우 『日本書紀』의 편찬에 의해 후대의 사관으로 윤색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에 壬午年이라는 기년을 따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시된다. 뿐만 아니라 『古事記』 應神紀에 나오는 칠지도의 전달 등이 명문의 재검토로 인해 408년인 것이 확실시되므로 (洪性和(2009), 앞의 논문, 『韓日關係史研究』³⁴⁾ 阿知吉師와 和邇吉師(王仁)의 渡日 및 秦人의 행적도 『日本書紀』와 같이 應神朝의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古事記』 應神紀에 나오는 백제의 왕이 照古王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를 구원한 木羅斤資가 백제장군이었으므로 가라국이 구원을 요청한 세력이나 원군을 보낸 세력, 또한 신라를 치기 위해 군을 파견한 세력도 왜가 아니라 백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³²⁾

이때 木羅斤資가 가라에 이르러 사직을 복귀시켰다면, 고구려나 신라와 싸워서 가라의 지역을 복귀시켰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가라는 백제에서 파견한 木羅斤資에 의해 다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일시적으로 가야가 붕괴되고 이들 왕족들이 백제와 왜로 도망을 갔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木羅斤資에 의해서 다시 평정 복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사) 神功 62조 분주에 나온 『百濟記』의 기사가 여러 가지로 윤색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木羅斤資가 가라를 구원하였다는 내용은 백제의 가라 7국의 평정사실과 연관되어 백제장군 木羅斤資가 가라와 관련이 깊은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IV. 神功紀 삼한정벌의 의미

지금까지 廣開土王碑文과 비교하여 『日本書紀』의 神功紀와 應神紀에 실린 한반도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日本書紀』 神功, 應神紀에 기록된 왜의 한반도 침탈 및 출병 기사를 추려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日本書紀』 神功, 應神紀 내 倭의 한반도 침탈 및 군사 파견 기록

	日本書紀 기년	내용
(가)	神功섭정전기 冬10월	삼한정벌 및 微叱已知波珍干岐를 볼모로 함
(나)	神功섭정전기 12월 分註	삼한정벌 및 宇流助富利智干의 고사
(다)	神功 49년 및 50년	木羅斤資에 의한 加羅7국 및 南蠻枕彌多禮, 4군의 평정, 多沙城 하사
(라)	神功 62년 및 分註	沙至比跪의 가라 침략 및 木羅斤資의 사직 복구
(마)	應神 8년 3월	枕彌多禮, 峴南, 支侵, 谷那, 東韓之地를 빼앗음.
(바)	應神 14년	弓月的 인부를 가야에서 데리고 오도록 葛城囊津彦 파견

32) 金鉉球(1993), 앞의 책, pp.52-53

(사)	應神 16년 2월	東韓之地를 줌.
(아)	應神 16년 8월	平群木菟宿禰, 的戶田宿禰 등을 가라에 보내 龔津彦과 함께 돌아옴.

(개의 神功 攝政 前紀 冬10月 신라 정벌 고사에는 微叱己知波珍干岐와 毛麻利叱智가 등장하고 있어 이 기사는 대체적으로 4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의 기사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는 廣開土王碑文에 나타난 시기의 역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廣開土王碑文에 나오는 한반도 내 倭의 전투기록은 倭가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百濟의 요청에 의해 출병한 지원군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가) 神功에 의한 삼한정벌 고사는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출병했던 倭의 기록이 과장, 윤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神功 섭정전기 12월 分註에 나오는 삼한정벌 기사³³⁾ 應神의 탄생 기록의 分註에 등장하는 일설로서 정작 神功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록이다. 삼한정벌의 기사를 神功紀에 위치시키면서 『三國史記』에서 253년경에 등장하는 昔于老의 전승을 껴맞추어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일부 왜의 신라 내습 사실이 삼한정벌이라는 허구의 의식으로 포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神功 49년 春3월 및 50년 夏 5월 기사의 경우 『日本書紀』에는 주체가 倭로 되어 있지만, 실상 백제에 의해 加羅 7국이 점령되고 南蠻忱彌多禮 및 4군이 평정되었던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사는 백제장군인 木羅斤資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반도 남부에 대한 木氏의 활동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33) 『日本書紀』 卷 第9 神功 攝政 前紀 12月 分註

時神稱其名曰 表筒雄 中筒雄 底筒雄 如是稱三神名 且重曰 吾名向置男聞囊大歷五御魂速狹騰尊也 時天皇謂皇后曰 聞惡事之言坐婦人乎 何言速狹騰也 於是神謂天皇曰 汝王如是不信 必不得其國 唯今皇后懷妊之子 蓋有獲歟 是夜天皇忽病發以崩之 然後皇后隨神教而祭 則皇后爲男束裝 征新羅 時神導之 由是隨船浪之遠及于新羅國中 於是新羅王宇流助富利智干 參迎跪之 取王船既叩頭曰 臣自今以後 於日本國所居神御子 爲內官家 無絕朝貢 一云 禽獲新羅王詣于海邊 拔王臙筋令匍匐石上 俄而斬之埋沙中 則留一人 爲新羅宰而還之 然後新羅王妻不知埋夫屍之地 獨有誘宰之情 乃詭宰曰 汝當令識埋王屍之處 必篤報之 且吾爲汝妻 於是宰信誘言 密告埋屍之處 則王妻與國人 共議之殺宰 更出王屍葬於他處 時取宰屍 埋于王墓土底 以舉王櫬窆其上曰 尊卑次第固當如此 於是天皇聞之 重發震忿 大起軍衆 欲頓滅新羅 是以軍船滿海而詣之 是時 新羅國人悉懼不知所如 則相集共議之 殺王妻以謝罪

결국 이들 기사는 후대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木氏 후에 씨족들에 의해 백제의 군사가 야마토 정권의 군사로 윤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거꾸로 후대에 木氏 후에 씨족들이 야마토 정권의 주도층에 편입되어³⁴⁾ 백제와 왜의 긴밀했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래)의 神功 62년 기사, (바)의 應神 14년 기사, (야)의 應神 16년 8월 기사의 경우는 廣開土王碑文 永樂 9년 및 10년에 나오는 사건이 『日本書紀』에 표현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神功 62년의 가라 침공의 경우 실상은 廣開土王碑文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고구려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백제에 대해 왜가 군사 원조를 한 것이며 『日本書紀』 應神紀의 상황도 역시 廣開土王碑文에 나오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마)의 應神 8년 3월 기사와 (새)의 應神 16년 2월의 기사에 나오는 東韓之地 등에 관한 내용은 廣開土王碑文의 永樂 6년 및 8년에 있었던 사건과 같이 이들 지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겼다가 東韓之地를 다시 탈환했던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神功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나)와 백제의 기사로 볼 수 있는 (다)를 제외하면, 『日本書紀』 神功, 應神紀에 기록된 왜의 한반도 침탈 및 출병 기사는 고구려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는 백제가 왜와 和通을 했던 서기 4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의 국제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고구려-신라로 연결되는 세력과 백제-가야-왜로 이어지는 구도 속에서 나타난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기사의 경우 倭가 한반도에서 출병하게 된 것은 백제 때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에 倭가 백제의 지원병으로 참여했던 국제 관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廣開土王碑文의 시대와 동시기라고 할 수 있는 應神紀에 고구려와의 전쟁 기록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고구려가 백제의 땅을 빼앗은 것이

34) 그 대표적인 예로 蘇我氏의 조상 蘇我滿智를 백제에서 渡日한 木滿致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門脇禎二(1977) 『飛鳥-その古代史と風土』新版、日本放送出版協會、p.47 ; 志田諄一(1971) 『古代氏族の性格と伝承』、雄山閣、p.66 ; 金鉉球(2007) 「백제의 木滿致와 蘇我滿智」 『日本歴史研究』25, 일본사학회, pp.18-21)

『日本書紀』 편찬자에 의해 일본이 백제의 땅을 빼앗은 것으로 개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日本書紀』의 편찬자가 천황주의적 사관에 의거하여 『日本書紀』를 편찬하면서 倭國이 고구려에게 비참하게 패했던 당시의 사실을 윤색하여 백제의 지원군으로 왔던 출병기사를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고는 오히려 출병의 기사를 神功紀에 삼한정벌로서 왜곡하여 위치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그 증거로서는 七支刀(七枝刀)의 기사가 있다. 七枝刀의 전 달이 『日本書紀』에는 神功 52년조에 기술되어 있으나³⁵⁾ 『古事記』에는 和邇吉師(王仁)의 渡日과 함께 應神記에 씌어있다.³⁶⁾

石上神宮에 보관되어 있는 七支刀의 명문에 대한 확대 근접사진과 X선 사진을 검토하면 年月의 글자 사이에 ‘十’자가 검출되어³⁷⁾ 기존 5月로 보았던 명문을 丙午의 간지와 함께 11月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즉, 七支刀는 408년 백제의 腆支王 4년 11월 16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명문의 쓰인 대로 百濟王世子(久爾辛)가 진귀하게 태어난 것을 계기로 倭王에게 하사된 칼인 것을 알 수 있다.³⁸⁾ 즉, 5세기초 한반도 내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치열한 전투를 하였던 상황을 통해 七支刀가 제작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古事記』에 의해 전승되던 내용이 『日本書紀』의 편찬과정에서 神功의 것으로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日本書紀』 神功紀에는 應神紀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혼재되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廣開土王碑文에 나타나는 정황이 후대에 창작되어 神功紀 안에 같이 기록, 삽

35) 『日本書紀』 卷 第9 神功 52年 秋9月丁卯朔丙子

久氐等從千熊長彥詣之 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 及種種重寶

36) 『古事記』 應神記

貢上橫刀及大鏡 又科賜百濟國 若有賢人者貢上 故受命以貢上人 名 和邇吉師 卽論語十卷 千字文一卷 并十一卷付是人卽貢進 【此和邇吉師者 文首等祖】

37) 1977년과 1978년 찍은 七支刀 銘文의 확대 근접사진과 1981년 NHK에서 촬영한 X-레이 사진을 통해 銘文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村山正雄(1996) 『石上神宮七支刀銘文圖錄』、吉川弘文館、p.44)

38) 『三國史記』 腆支王 즉위년조(405년)기록의 말미에 ‘八須夫人이 久爾辛王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久爾辛王이 405년에 태어났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지왕의 왕후가 八須夫人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八須夫人이 久爾辛王을 낳았다는 家系譜를 강조하기 위해 넣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久爾辛의 탄생은 칠지도 명문의 내용으로 보면 칠지도가 제작된 408년경인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洪性和(2009), 앞의 논문, 『韓日關係史研究』 34, pp.24-25 참조)

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宋書』의 기록에 의하면, 對高구려전을 직접 지원했거나 413년에 중국에 사신을 파견한 왜왕은 讚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⁹⁾ 기년이 불분명하고 후대에 윤색, 삽입되었던 것이 분명한 『日本書紀』 神功, 應神紀의 기록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는 중국 측의 기록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倭의 5왕에 대해서는 『日本書紀』에 나오는 天皇과 비정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계보상 대체적으로 讚을 『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는 履中으로, 珍을 反正, 濟를 允恭, 興을 安康, 武를 雄略으로 비정하고 있다.⁴⁰⁾

그렇다면 『日本書紀』의 神功紀는 중간에 삽입된 것이고 應神紀는 왜왕 讚의 행적을 대체하여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日本書紀』에서 기년의 문체가 대두된 것도 실상은 神功을 『三國志』 魏志의 卑彌呼와 일치시키면서 2주갑을 인상했던 때문인데, 따라서 『日本書紀』에는 후대에 만들어진 神功紀과 應神紀가 중간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렇다면 『古事記』와 『日本書紀』가 성립되는 시기 이전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 神功, 應神 전승의 모태가 되었을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神功의 전승 속에 推古, 皇極(齊明), 持統이라는 3명의 여왕과 함께⁴¹⁾ 巫女로서 나타나는 神功의 모습이 주목된다.

실제 神功의 전승은 신라정벌을 포함하여 神託, 氣比大神에 대한 참배, 應神에게 술을 권하는 神功의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중요한 것은 應神의 어머니로서 활약하는 神功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산달이었는데도 돌을 들어 허리에 차서 출산을 지연시키고, 바다 건너 신라 정벌을 감행한 후 돌아와 筑紫의 宇彌에서 應神을 낳았다고 하는 전체적인 구성에서 神功과 應神은 하나의 세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日本書紀』 神功 섭정전기 12월 分註의 기사를 보면, 神功의 전승에 表筒雄神, 中筒雄神, 底筒雄神의 3神을 가리키는 住吉신앙이 나타나고 있다. 住

39) 倭王 讚은 차고구려전을 직접 지원한 당사자였거나 적어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 (김현구(2009), 앞의 논문 참조)

40) 藤間生大(1968) 『倭の五王』, 岩波新書, p.36

41) 直木孝次郎(1988) 앞의 논문

吉신앙은 『日本書紀』 繼體紀에서 『日本書紀』 撰者에 의해 윤색된 기사이기는 하지만 住吉大神이 胎中譽田天皇에게 高麗, 百濟, 新羅, 任那 등을 주었다고 하여 이를 한반도 지배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²⁾ 住吉大神은 원래 해상 안전을 수호하는 航海神인데, 이 신앙이 신라 침공 전승을 통해 神功의 삼한 정벌기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住吉신앙은 北九州와 한반도를 출항하는 이들이 航海神인 住吉大神에게 행했던 기원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³⁾

이처럼 神功 전승의 원형을 찾는 작업은 바다 저편에서 건너와 해변에 자식을 낳는 母子神의 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⁴⁴⁾ 北九州와 壹岐, 對馬를 渡海하는 神功의 전설이 神功의 女神의 측면과 應神의 海童의 측면이 융합된 ‘水邊의 小童과 母神’이라는 海童신앙으로 나타났을 것이다.⁴⁵⁾ 이것이 민간층에 널리 퍼졌던 오타라시히메(オホトラシヒメ)와 八幡神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神功과 應神 전승으로 발전했을 것이다.⁴⁶⁾ 또한 당시 北九州에서 나타난 ‘水邊의 小童과 母神’에 대한 祭儀가 이상적인 존재로 한반도 정벌을 행한 巫女 여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書紀』보다 먼저 나왔다고 추정되는 『古事記』의 경우는 神功에 관한 행적을 仲哀記에 같이 두고 있으나 『日本書紀』에서는 神功에 대해 攝政紀라는 本紀를 따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古事記』의 기본적 전승 내용을 토대로 하여 『日本書紀』가 여러 기사를 혼합하여 따로 神功紀를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근거는 『古事記』에 두고 있을 터인데, 최초 『古事記』의 神功 전설의 성립에 있어서 유력한 사료로 추측되는 것은 「帝紀, 舊辭」였을 것으로 판단된

42) 『日本書紀』 卷 第17 繼體 6年 冬12月

物部大連 方欲發向難波館 宣勅於百濟客. 其妻固要曰 夫住吉大神 初以海表金銀之國 高麗 百濟 新羅 任那等 授記胎中譽田天皇. 故天后息長足姬尊 與大臣武內宿禰 每國初置宮家 爲海表之蕃屏 其來尙矣.

43) 塚口義信(1980) 『神功皇后伝説の研究』、創元社、pp.32-33

44) 三品彰英(1972) 『朝鮮神話伝説の研究』、平凡社 ; 上田正昭(1996) 『古代日本の女帝』、講談社学術文庫、pp.97-98

45) 米沢康(1962) 「神功皇后伝説の一考察-その祭儀的基礎と発展」 『神道史研究』、第10卷第2号

46) 塚口義信은 香椎宮에 얽힌 오타라시히메(オホトラシヒメ)의 전승과 風土記적인 지방전설이 첨가되어 神功의 이미지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塚口義信(1980) 앞의 책, pp.11-85)

다. 「帝紀, 舊辭」의 성립시기에 대해 정리된 견해를 표명했던 것은 津田左右吉였다.⁴⁷⁾ 그는 「舊辭」의 성립연대에 대해 『古事記』에 顯宗까지 설화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로부터 멀지 않은 欽明朝 전후일 것으로 추측했으며 「帝紀」의 경우도 安閑記 및 敏達記 이하에서 연령의 기재가 없다든지, 仁賢, 武烈, 宣化, 欽明記에서 연령도 陵의 소재도 기술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舊辭」의 성립시기와 같은 欽明朝 전후로 상정했다. 그의 견해대로 「帝紀, 舊辭」의 성립시기를 欽明朝 전후로 보다면 神功의 전승은 「帝紀, 舊辭」가 성립된 시점 이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어떠한 사실이 그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의 관련 속에서 北九州의 海中에서 낳은 아이,’ ‘바다 저편에서 건너와 해변에 자식을 낳는 어머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日本書紀』 雄略紀에 기재되어 있는 武寧王의 탄생 전승이 주목된다.

(o) 『日本書紀』 卷 第14 雄略 5年 6月 丙戌朔

孕婦果如加須利君言 於筑紫各羅嶋産兒. 仍名此兒曰嶋君. 於是 軍君即以一艘送嶋君於國. 是爲武寧王. 百濟人呼此嶋曰主嶋也.

이처럼 孕婦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가는 海中 筑紫의 各羅嶋에서 嶋君을 출산했다는 武寧王의 탄생 설화가 北九州 母子神의 신앙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北九州와 對馬 일대에는 神功의 정벌 고사와 應神의 탄생 고사가 다수 보이고 있는데, 孕婦에 의해 渡海하는 과정에서 武寧王이 태어났다고 전하는 各羅嶋(加唐島) 오비아(オビヤ)浦의 경우도⁴⁸⁾ 神功의 설화와 맞물려 있다. 오비아浦라는 이름은 神功이 아들 應神을 임신했을 때 松浦 지방에 들어와 신라를 정벌할 준비를 하다가 着帶式을 했다는데서 연유했다고 한다.⁴⁹⁾ 이는 神功의 전승이 武寧王이 생존한 5~6세기적인 상황과 겹쳐진다고 하는 견해와도 일견 상통하는 면이 있다.⁵⁰⁾ 이처럼 神功의 전승은 孕婦와 武寧王의 탄

47) 津田左右吉(1963)앞의 책, pp.46-48

48) 古代的 航路도 松浦, 呼子, 加唐島, 壹岐, 對馬라는 연안 루트를 통해 한반도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航路 중에 보이는 加唐島가 嶋君이 태어났던 各羅嶋일 가능성은 높다.

49) 현지 사람들에 의하면 오비아浦라는 이름은 임신부가 복대하는 날을 축하하는 행사인 오비아이(おびいまい)가 변해서 된 말이라고 한다. (홍성화(2008) 『한일고대사 유적답사기』, 삼인, p.289)

생이 神功과 應神이라는 母子神의 신앙과 맞물려 나타남으로써 전승의 모태를 제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무령왕의 탄생설화가 繼體, 欽明朝를 중심으로 한 기간에 息長 계통의 神功 전승 설화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古事記』에서 神功의 모계의 시조로 신라왕자 天之日矛를 기록한 계보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武寧王의 탄생과 연결된 母子神의 전승은 神功 전승의 모태가 되었던 한반도 관련 요소가 神功의 삼한정벌이라는 설화적 요소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神功과 應神의 존재가 오히려 역으로 神功의 삼한정벌이라는 테제로서 『日本書紀』 찬자들의 창작소재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日本書紀』에 나오는 神功, 應神紀의 한반도 출병 및 침탈 기사를 廣開土王碑文에 나오는 기사와 대조하여 보면, 대부분 廣開土王碑文에서 볼 수 있는 4세기말~5세기초엽의 사실이 『日本書紀』 찬자에 의해 윤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4세기말~5세기초엽에 고구려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백제에 대해 倭가 군사원조를 한 사실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日本書紀』 神功, 應神紀의 창작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本考에서 검토한 바, 『日本書紀』의 神功 攝政 前紀 冬10月 신라 정벌의 고사, 神功 62년 및 分註 沙至比脆의 가라 침략의 기사와 應神 14년 및 應神 16년 8월의 葛城襲津彦 관련 기사, 그리고 應神 8년 3월 및 應神 16년 2월에 나오는 東韓之地 등과 관련된 기사는 고구려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는 백제가 倭와 和通을 하여 왜를 고구려와의 전쟁에 끌어들이는 사실을 『日本書紀』의 찬자가 천황주의적 사관에 의거하여 윤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日本書紀』 神功紀, 應神紀에는 신라 침입과 한반도 남부에 대한 대

50) 三品彰英(1972)앞의 책, pp.162-176

규모 출병 사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廣開土王碑文에 나와 있는 396년~407년의 기사와 비교해보면 백제가 왜와 和通한 정황, 帶方界까지 이른 점 등을 통해 한반도에 왜가 출병하였던 것은 당시 고구려와 백제와의 세력 다툼 속에서 倭가 百濟에 보낸 지원군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日本書紀』의 神功, 應神紀가 한반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처럼 神功의 전승 또한 孕婦에 의한 海童의 탄생, 즉 武寧王 탄생과 같은 한반도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대동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日本書紀』에서는 광개토왕 시기에 있었던 한반도 출병 사실을 삼한정벌과 한반도 지배의 기원으로 설정하였던 것이지만, 이 시대에 나타난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倭가 백제에 제공한 군사 지원 외교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 金鉉球(1993) 『任那日本府研究』, 一潮閣, pp.30-53
- _____ (2007) 「백제의 木滿致와 蘇我滿智」 『日本歴史研究』25, 日本사학회, pp.18-21
- _____ (2009) 「5세기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한 倭의 實體」 『日本歴史研究』 29, 日本사학회, pp.5-32
- 吳吉煥(2008) 「廣開土王碑文 紀年記事에 보이는 廣開土王의 軍事行動」 『박물관지』,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pp.93-97
- 千寛宇(1991) 「復元加耶史」 『加耶史研究』, 一潮閣, pp.23-25
- 홍성화(2008) 『한일고대사 유적답사기』, 삼인, p.289
- _____ (2009) 「石上神宮 七支刀에 대한 一考察」 『韓日關係史研究』34, 한일관계사학회, pp.8-29
- _____ (2009) 「『日本書紀』 應神紀 東韓之地에 대한 고찰」 『日本歴史研究』 30, 日本사학회, pp.5-32
- 井上光貞(1960) 『日本国家の起源』, 岩波新書, pp.124-131
- _____ (1965) 「帝紀からまた葛城氏」 『日本古代国家の研究』, 岩波書店, pp.56-59
- 上田正昭(1996) 『古代日本の女帝』, 講談社学術文庫, pp.97-98
- 岡本堅次(1959) 『神功皇后』, 吉川弘文館, pp.21-82
- 門脇禎二(1977) 『飛鳥-その古代史と風土』新版, 日本放送出版協会, p.47
- 志田諄一(1971) 『古代氏族の性格と伝承』, 雄山閣, p.66

- 鈴木英夫(1996) 『古代の倭国と朝鮮諸国』、青木書店、pp.54-55
田中卓(1985) 「神功皇后“実在”論-北見俊夫教授の発言に関連して」 『悠久』21、 pp.109-203
塚口義信(1980) 『神功皇后伝説の研究』、創元社、 pp.11-85
津田左右吉(1963) 『日本古典の研究上 津田左右吉全集』1、岩波書店、 pp.46-48
藤間生大(1968) 『倭の五王』、岩波新書、 p.36
直木孝次郎(1988) 「神功皇后伝説の成立」 『古代日本と朝鮮、中国』、講談社、 pp.76-106
浜田耕策(1974) 「高句麗広開土王陵碑文の研究」 『古代朝鮮と日本』、竜溪書舎、 pp.58-62
三品彰英(1972) 『日鮮神話伝説の研究』、平凡社、 pp.162-176
村山正雄(1996)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録』、吉川弘文館、 p.44

- ❖ 투고일 : 2009. 12. 31.
- ❖ 심사일 : 2010. 1. 11.
- ❖ 심사완료일 : 2010. 1. 20.